

##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발행 뉴스레터 – 2005년 4월 (6호)

### (한국어판)

안녕하십니까?

올해 독일에서 ‘한국의 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이렇게 올해 첫 뉴스레터를 발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독일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펼쳐지게 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와 독일재계가 기획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주간에서는 한국이 중심국가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한국사무소는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본부 국제협력원의 원장인 라이너 게퍼트 박사는 이번 달에 방한하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협력사업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평화문제연구소의 재외동포세미나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한, 중, 일 사이에 표출되고 있는 갈등을 통해 오늘날 재외동포들이 3국 간에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재외동포세미나와 더불어 평화문제연구소가 지난 수 년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조선향토지리대백과의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6월에는 유럽 코리아 재단과의 협력하에 북한에서 주요기관 간부들을 대상으로 환율과 인플레이션 등의 내용을 주제로 한 제 2차 ‘국제금융’ 특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저희 재단 한국 사무소와 파트너들의 활동내용들을 이번 호 뉴스레터에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뉴스레터가 유익한 정보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 수록내용

- 라이너 게퍼트 박사(우리 재단 국제협력원장) 방한 소식
- 재외동포 세미나 개최 소식(제주도)
-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주최 ‘지방의회출범 15년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
- 특강시리즈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 평양 ‘국제금융’ 특강
- 농협 중앙회 독일연수
- 평화문제연구소 통독현장연수
- ‘의원 보좌관 연수’: 독일연방국회에서의 실질적인 경험
-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인턴쉽 프로그램

## 라이너 게퍼트 박사(우리 재단 국제협력원장) 방한 소식

우리 재단의 해외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국제교류협력원의 원장 겸 재단 사무총장인 라이너 게퍼트 박사가 4월 중순에 내한했다. 게퍼트 박사는 이번 방한 기간 중에 개최되는 우리 재단 동남아시아 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동시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의 협력사업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작년부턴 시작된 우리 재단 한국사무소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협력관계는 한반도 분단극복이라는 틀 안에서 이론적 토대의 실천적 이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게퍼트 사무총장은 이 밖에도 평화문제연구소와 우리 재단이 공동개최하는 재외동포세미나에 참석하고 정치인 및 파트너들과 면담을 가졌다.

## 재외동포세미나 및 조선향토지리대백과사전 출판기념회(평화문제연구소)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제주도에서 평화문제연구소와 우리 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재외동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세미나에는 해외거주동포들이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그를 위한 재외동포들의 역할에 관해 열띤 논의를 전개하였다. 재외동포들은 중국, 미국, 일본 등의 거주국 내지는 조국과 자신들의 뿌리인 한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북한체제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한반도 분단극복에 있어서 한국의 우방 및 파트너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통한 위협과 동북아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문제연구소와 우리 재단이 주최하는 재외동포세미나를 통해 재외동포들과 정치인들, 학자들이 서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세미나를 마친 직후인 4월 21일(목)에는 서울에서 조선향토지리대백과사전 출판기념회가 개최되었다. 백과사전은 수 년간에 걸친 어려운 작업 끝에 전체 20권으로 완간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후원자로는 통일부도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북한에 관한 지리, 문화분야의 방대한 정보들을 담고있는 본 백과사전의 출간은 매우 환영할 만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주최 ‘지방의회출범 15년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인천)

우리 재단은 한국의 지자체 제도입과 분권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15년간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수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발전연구원은 매우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해 왔으며, 지방의회의원들의 재교육과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실질적, 이론적 뒷받침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인천 중구의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 출범 15년 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토론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임 경호 지방의회 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이 재창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측 관계자, 내무부 관계자, 많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였다. 우리 재단을 대표하여 행한 축사에서 라이너 게퍼트 박사는 한국의 경우에 지방자치제도를 위한 법률적 토대는 모두 갖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들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특강시리즈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 정치, 경제, 사회분야 현황’

이번 달에 체결된 우리 재단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간의 협력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학기에는 ‘북한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연속공개강좌를 실시한다. 이 공개강좌가 실시되기까지는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계시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박 성조 교수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은 바 크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분야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질 전망이다. 특강에 참석할 대상은 주로 중앙은행과 경제연구소 간부들 및 대학의 교수와 연구원들이다. 우리 재단은 지난 해부터 경제발전 및 농업관련 직업교육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평화문제연구소 통독현장연수

오는 7 월에 우리 재단은 평화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접경지역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바이에른-작센-퇴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통독현장연수를 실시한다. 환경보존과 경제발전, 이주 등은 독일과 유럽이 냉전으로 인한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주요도전과제들이다. 이와 관련된 경험들을 한국의 경우에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연수의 목적이며, 연수단은 바이로이트와 독일-체코 간의 유로지역인 에그렌시스, 켐니츠, 드레스덴 등을 방문하게 된다.

## 농협중앙회 독일연수

2005 년 6 월 말에 농협 중앙회는 우리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농협 일선조합장들과 중앙회 임직원들로 구성되는 연수단의 이번 연수 주제는 ‘신연방주들에 있어서의 농업구조의 변화’가 될 전망이다. 농촌지역의 재건을 포함한 광범위한 농업관련 물음들이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바이에른 주와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주 농림부, 연방 농림부 및 협동조합들과 농가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며, 제도전환에 따른 농업정책의 한계와 가능성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의원 보좌관 연수’ : 독일연방국회에서의 실질적인 경험

여성들의 정치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또한 우리 재단 한국사무소의 주요과제들 중 하나이다. 우리 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정치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의원 보좌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정치적 관심을 가진 여성 및 관련교육을 이수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국회 보좌진 과정을 이수한 여성들 중 약간명을 선출하여 독일의회 또는 유럽의회에서 인턴십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올해 3 월에는 김 민경씨가 독한협회 회장이며, 독한의원 친선협회 회장인 하르트무트 코쉬크 연방의회 의원실에서 4 주간의 실습과정을 마쳤다.

## 한스 자이델 재단 인턴쉽 프로그램

우리 재단 한국사무소는 2년 전부터 한국 및 독일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인턴쉽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국제인턴쉽 중계 프로그램인 KOPRA를 통해 홍보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인턴쉽 수요가 크게 늘었다. 현재 우리 재단 한국사무소에는 세 명의 독일학생들이 인턴쉽에 참여하고 있는데, 에어랑엔 대학교 박사과정생인 페터 겔리우스(북한의 권력구조에 관심)를 비롯하여 카타리나 폴라이, 안드레아스 티게만이 그들이다. 현재 올해 우리 사무실의 인턴쉽 정원은 모두 예약된 상태이며, 새로운 인턴쉽 과정은 2006년인 내년 초부터 가능한 상황이다. 인턴쉽에 필요한 전공으로는 특히 사회과학분야이며 인터넷 웹사이트 보수 및 유지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할 것: [www.kopra.org](http://www.kopra.org)

---

상기 뉴스레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이메일 제목란에 'remove'를 적으신 후 [newsletter@hss.or.kr](mailto:newsletter@hss.or.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를 구독하기를 원하시면 이메일 제목란에 'subscribe'를 치신 후 [newsletter@hss.or.kr](mailto:newsletter@hss.or.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 1동 64-1 수영빌딩 501호 우:140-886

Tel: +82-2-790-5344 or 5345

Fax: +82-2-790-5346

E-Mail: [info@hss.or.kr](mailto:info@hss.or.kr)

Homepage: [www.hss.or.kr](http://www.hss.or.kr)